

바이오 투자확대는 “필수조건”

2008년 세계시장 1250억달러 … 제약기업 투자확대 진척

Amgen 등 바이오기업들이 2001년 크게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Pharma Business에 따르면, 미국 500대 제약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Viagra로 잘 알려진 Pfizer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기업이 7위까지 포진해 있다.

특히, 싸이토카인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해 2001년 10억달러를 벌어들인 Amgen은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했고, Genentech이 11위에 랭크되는 등 바이오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도 국내외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투자금액이 8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국내 21개 제약기업들은 2001년 말 기준으로 국내외 바이오벤처기업에 818억5000만원(녹십자 제외)을 투자했으며, 72건의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아제약을 비롯해 동화약품, 중외제약, 안국약품, LGCI, 환인제약 등 6개 제약 및 생명공학기업은 미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바이오벤처 8개 기관과 전략적 제휴 등의 협력관계를 통해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제약기업별 투자금액 및 건수는 중외제약 70억원(3개), 유유산업 60억원(2개), 대웅제약 58억7000만원(9개), 동아제약 40억원(8개), 종근당 37억8000만원(5개), 한미약품 31억7000만원(2개), 현대약품 13억원(3개) 등이다.

제약협회는 바이오벤처와 제약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는 신약 개발경쟁과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유용한 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모델이며 국내에서도 협력모델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생명공학연구원은 2008년 세계 바이오 시장규모가 1250억달러에 달하고 바이오의약 668억달러, 바이오화학 100억달러, 그리고 바이오공정 및 측정을 188억달러로 예측했다. 또 바이오환경은 87억달러, 바이오식품은 75억달러, 바이오에너지는 37억달러, 그리고 바이오 농업 및 해양은 7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4/ 24 >